

한미 FTA를 세계 3위 디지털전자 강국 도약의 계기로

“전자산업구조 선진화 토론회”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구미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전자산업구조 선진화 토론회’를 7월 20일 개최하였다.

산자부는 “한미 FTA는 우리나라 전자산업에 긍정적이라며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일본, 유럽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있어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장비·소재, 전자 의료기기, 계측기 등 기술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일부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또 “반도체, 휴대전화, 컴퓨터 등은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FTA에 따른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장비·재료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의 수급기업펀드를 조성, 고기능·복합형 시스템 반도체 기술개발을 확대하고 미국내 디스플레이 모듈공장 설립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성장 동력사업의 빠른 산업화를 위해 조기에 상용화할 수 있는 제품을 집중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 미국기업의 연구개발(R&D)센터 설립 유도,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 등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토론회에서 한국전자산업진흥회 운동훈 본부장 “한미 전자산업은 비교우위 분야가 명확하고 상호보완적 교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미국시장은 세계 최대 전자제품 소비시장으로, 우리나라 주력 유망제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LCD, PDP, 프로젝션 TV 등 대형 디지털 TV의 수요가 증가하고 휴대폰, 컴퓨터, MP3, D-STB 등은 소폭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 이재훈 산업정책본부장은 “미국,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반덤핑 등 무역구제조치, 특히,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 등 신흥공업국은 맹추격을 하고 있는 등 여러 요인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한미 FTA는 시의 적절한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은 국내의 10배가 넘는 전자산업의 최대 시장으로 이번 한미 FTA를 전자산업 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 메모리 반도체,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 품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제품 구성을 다양화해서 시장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를 통한 전자산업 구조 고도화 방안(개요)

1. 국내 전자산업 현황

- 우리나라 전자산업은 '05년 생산규모 기준으로 세계에서 7.2%를 점유하여 미국(20.6%), 중국(15.7%), 일본(15.1%)에 이어 세계 4위
 -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5.5%로 미국(1.9%), 일본(7.6%)에 비해 높은 성장 추세
- '05년 국내 단일산업 최초이자 일본('94년), 미국('96년), 중국('02년)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전자수출 1,000억불 달성
 -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서 최대

2. 한미 전자산업의 교역 구조

- 미국은 한국 수출입 비중 3위의 주요 교역국
 - '05년 한미 전자산업 교역액은 241.5억불로 전체 교역액의 1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14.1%, 수

입의 17.1%를 차지

- 對中 교역 급증 및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우회교역 확대 등으로 인해 전체 교역에서 대미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 감소* 추세

* '95) 45% → '00) 28.9% → '03) 19.2% → '04) 18.3% → '05) 15.2%

□ 한미 전자산업은 비교우위 분야가 명확,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형성

- 메모리반도체, 휴대폰, 영상기기, 백색가전(한국 우위), 비메모리반도체, 계측제어분석기, 전자게임기(미국 우위) 등 대부분의 품목은 低경쟁 구도

- 다만, 컴퓨터, 유선 통신기기, 음향기기 등 일부 품목에서는 경쟁관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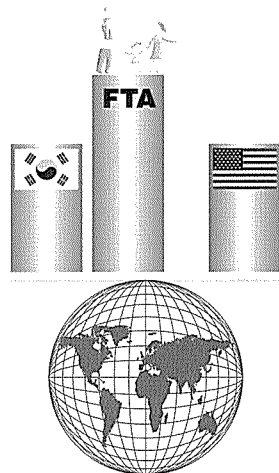
□ 미국시장은 세계최대 전자제품 소비시장으로서, 우리나라 주력 유망제품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전망

- LCD, PDP, 프로젝션 TV 등 대형 디지털 TV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휴대폰, 컴퓨터, MP3, D-STB 등은 소폭 성장 예상

3. 한미 FTA의 영향

□ 전체적으로 전자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ITA(정보기술협정)에 따라 이미 무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반도체, 휴대폰, 컴퓨터 및 관련부품 등은 FTA체결에 따른 영향 미미
- 디스플레이, 가전 등은 일본, 유럽



등에 비해 기술경쟁력이 상승, 수출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장비 및 소재, 전자의료기기 및 계측기 등 기술력이 열위에 있는 산업은 일부 피해 예상

4. 대응방안 : 산업구조 고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적극 활용

□ 메모리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수출 주력품목의 고부가가치화 및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여 능동적으로 시장변화에 대응

- 장비·재료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수급기업펀드 조성* , 고기능·복합형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확대, 설계·디자인의 현지수요 반영을 위한 미국내 디스플레이 모듈공장 설립 지원 등을 추진

* '06년 수급기업 펀드 규모 : 3,000억원

□ 미래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술리더십 확보 및 세계 시장 선점

- 지능형 로봇, 홈네트워크 등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조기 산업화를 위해 조기 상용화가 가능한 제품 집중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 유도 및 시범 보급사업 추진
- 융합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 융합 부품·소재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적권 확보 및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융합 신산업* 시장 선점

□ 상호 보완적 분업구도의 전략적 활용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협력 강화

-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국제공동 기술개발 지원, 미국기업의 R&D센터 설립 유도,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 추진
- 특허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친환경기술 개발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등장한 국제특허분쟁과 국제환경규제관련 중소기업 지원 강화

최근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반론 자료

① 미국 관세는 2%내외인 반면 우리나라는 8%수준이므로 수출보다 수입증대가 많지 않은가?

- (대미수출측면) : 단순히 관세율 차이(2% vs 8%)만을 고려한 계량모형은 수입개방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실재는 다른 결과를 보임
 - 미국이 우리의 10배 더 큰 시장으로 총량으로는 수입증대가 월등히 클 것으로 기대
 - * '05년 기준, 미국전자시장은 3,700억불이며 우리시장은 370억불
 - 멕시코의 경우 상대적 고관세 상황이 우리보다 더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NAFTA 체결 결과 멕시코의 대미 수출은 증가
- (대미수입측면) : 또한, 가전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세계적 수준의 디자인·기술력을 보유하여 현재 국내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고, 가전제품(ex: 냉장고)은 높은 물류비, AS망의 부재 등으로 미국제품의 국내시장 잠식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견해
 - * 중저가제품의 경우 미국제품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산이 문제가 됨
 - 미국에서 수입하는 전자제품은 자본재 성격이 강한 산업용제품*으로 한국 경기 호전시 생산활동에 필요한 자본재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지 무관세라고 해서 갑자기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아님
 - * 생산활동에 필요한 대형컴퓨터, 계측기 등 한국에서 생산이 어려운 장비

② 부품·소재, 장비의 경우 대부분 비FTA품목인데 수입 관세가 폐지되는 경우 수입증가가 예상되지 않는가?

- 수입관세 폐지로 일부 수입이 증가할 수 있으나, 대부분 국산화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부품소재이며, 비관세로 싸게 들어오는 경우, 오히려 국내 Set업체의 수출경쟁력은 제고되는 효과가 있음

* 반도체장비와 달리 디스플레이 장비는 수입관세가 8%임

③ 가전분야는 미국 관세가 평균 2%수준으로 낮고, 주요 기업들이 미국시장 공략을 위해 멕시코 등에 현지 공장체제를 구축하여 FTA로 인한 수출확대는 기대 난망 아닌가?

- 가전분야에서 미국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미 해외생산비중이 증대하여 수출의 대폭 증가를 예상하기는 힘든 상황
 - 현재 삼성, LG등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품질이나 상품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FTA로 인한 브랜드인지도 상승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친다면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④ 중소기업체는 미국기업에 비해 기술력이 낮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미국시장 진입이 어려우며, 관세철폐시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

- 한미 FTA에 대한 전자업체(110개 업체, 중소기업 참여율: 85%)의 의견조사에서 약 60% 이상의 업체가 한미 FTA를 찬성(반대는 약 25%)
 - 대부분의 전자업체(중소기업포함)는 주요 경쟁상대국으로 미국보다는 중국이나 일본을 지목하고 있으며 또한 한미 FTA체결은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의 급성장을 견제할 하나의 돌파구로 간주

전자제품별 주요 경쟁상대 국가

(단위 : %)

	일본	미국	중국	대만	한국	유럽연합	중남미	계합	미중립
가정용 전자제품	8.9	4.4	71.1	10.0	2.2	0.0	0.0	3.3	0.0
산업용 전자제품	10.0	14.6	44.6	13.1	7.7	2.3	0.8	6.9	0.0
전자부품	19.0	7.6	53.3	10.5	2.9	2.9	0.0	2.9	1.0
충전기기/전선	0.0	0.0	75.0	5.0	5.0	0.0	0.0	15.0	0.0

* 자료 : 한국무역협회, '2005년도 수출산업실태조사'